

전쟁 마케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입)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다방면에서 유대인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가 유대인이고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인 칼 맑스도 유대인이다. 아흔다섯 살 나이에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경영학의 '구루'(guru)인 피터 드러커도 유대인이다. 또 오늘날 전세계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S) 전 의장인 그린스판(Alan Greenspan)도 그렇다.

예수도, 네델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도,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희극배우 채플린도, 정치외교가 키신저도, 영화감독 스피버그도 유대인이다. 미국 신대륙 발견자 컬럼버스도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도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과 레이몽 아롱도 이태리 화가 모딜리아니도 그렇다. 명저 경제원론의 저자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샤뮤엘슨도 유대인이다.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유대인 스타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학계 문화계에 만 그들이 화려하게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돈을 만지고 장악하는 데에도 그들은 천재적이다.

로스차일드의 정보활용 솜씨

오늘날 유대인은 국제 금융계에서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럽의 뿌리깊은 로스차일드(Rothschild)가문을 본보기로 꼽을 수 있다. 이 가문의 시조인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최초근거지로 삼았다. 그 후 여러 아들을 파리 런던 비엔나 나폴리 등으로 분가시켜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계에서 각각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다. 귀금속 거래와 동전교환으로 출발한 그들은 빠른 속

도로 각국의 금융계를 장악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19세기 초반에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 웰링턴 장군과 프랑스 나폴레옹이 마지막 힘 겨루기를 했다.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 후예는 비둘기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영국이 이겼다는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증권거래소에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영국 국채를 팔았다. 이를 본 투자자들은 영국이 패배한 줄 알고 앞 다투어 채권을 팔았다. 채권가격은 폭락했다. 값이 떨어진 채권을 로스차일드 측근이 몰래 사들인 것은 물론이었다. 영국의 승리가 나중에 밝혀졌다. 채권 값은 폭등하고 로스차일드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를 혹자는 '전쟁 마케팅'이라고 불렀다.

남보다 앞선 정보의 채취와 활용

현대기업의 번영도 정보를 여하히 누구보다 앞서 채취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정보화 사회이므로 디지털경영에 앞서라는 뜻만이 아니다. 의당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방면에 걸쳐 끊임없이 고급정보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을 겪는 와중에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항상 흡수하고 있었다. 그런 후 걸러낼 것은 걸러내면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 활용해 나갔다. S그룹도 수십년동안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S그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정보의 채취와 활용능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S그룹은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여·야권력과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모든 정부기관과도 일이 있건 없건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아예 담당 중역은 회사출근보다 담당관공서 출근이 앞선다. 또 밀바다 시장에서 흘러 다니는 소문까지 압지처럼 빨아들이고 가공하여 값진 정보로 활용하는 게 알미울 정도로 탁월하다. 그것조차 기업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